

59번째, 농기구이야기

긁어모으거나 펴는 도구 ‘갈퀴’



(갈퀴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7.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갈퀴란

갈퀴는 곡식이나 검부러기 등을 한 곳에 모으는 도구로 보리를 파종할 때 이랑으로 흙을 긁어 뿌린 씨앗을 덮으며 밭의 흙을 고르기도 한다. 땔감으로 쓰기 위한 솔가리, 가랑잎 등을 긁어모을 때나, 가을에 벼·보리·밀·메밀·콩 등을 탈곡 할 때, 검불을 긁어모으거나 흩어진 알곡을 모을 때, 마당을 청소할 때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갈퀴의 자루를 잡고 몸의 좌우로 당겨 사용한다. 요즘은 멍석이나 곡식을 말릴 때 갈퀴를 사용하여 퍼거나 고르기도 한다.

갈퀴는 지방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른데, 각뽕이(경기도 백령)·각지(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까꾸리(경상남도·경상북도 일원)·갈쿠(경기도 덕적)·깍지(강원도 도계)·깁구랭이(강원도 도계)·깍쟁이(강원도 강릉)라고 하며, 갈쿠리·갈키·깁키로도 불린다. 갈퀴의 명칭은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시파자(柴把子),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에는 파자(爬子), 『해동농서(海東農書)』에는 ‘형파(荊杷)’로 표기되어 있다.

2. 갈퀴의 형태

갈퀴는 여러 개의 대나무나 싸리 또는 철사 등의 끝을 휘어서 그 끝과 앞이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도록 하고 그 중간을 나무로 가로로 대어 엮어매어 고정시켰다. 뒤는 끝을 오므리고 긴 자루를 대어 손잡이로 사용하였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갈퀴발은 10~20개 정도이며, 총 길이는 1~1.5m의 자루를 포함하여 2m 내외이다. 갈퀴발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부채살처럼 퍼서 만든다. 부채살 모양 중간에 힘을 받게 하기 위해 나무를 가로로 대어 펼쳐진 살들을 고정시켜준다. 이때는 칠닝쿨이나 왕골 말린 것 등을 교차해서 감아 나가는데, 자루와 살을 고정시킬 때에도 이를 사용한다.

(사진 1)



사진 1. 갈퀴의 세부모습

갈퀴에는 여러 가지 부분 명칭이 있다.(김광언, 1969)

1. 갈퀴발 : 갈퀴의 원 몸을 이룬, 갈고랑이 진 부분의 하나.
(또는 발, 끝, 살, 이)
2. 위치마 : 갈퀴의 앞초리 쪽으로 대고, 싸리나 근으로 엮은 코
(또는 춤, 띠)
3. 아래치마 : 갈퀴의 뒤초리 쪽으로 초리가 풀리지 않게
대나무를 가로 대고, 가는 새끼로 묶은 가장 짧은 코.(또
는 아래춤)
4. 갈퀴코 : 원 몸에 잡아매도록, 갈퀴 자루의 앞 끝을 에어
잡아맨 부분.(또는 고등)
5. 또아리 : 갈퀴 발의 다른 끝을 모아 잡아맨 부분.(또는 갈퀴목, 목)
6. 뒤초리 : 갈퀴의 여러 발의 끝이 한데 모여 엮여진 곳.(또는 초)
7. 자루 : 갈퀴의 원 몸과 연결된 손잡이 부분.
(또는 장치, 손잡이, 자루,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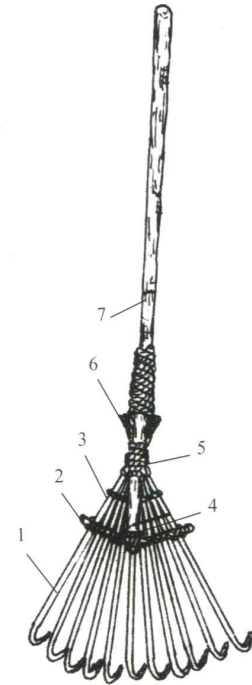


그림 1. 갈퀴의 부분명칭

갈퀴를 만드는 재료는 대나무, 물푸레나무, 싸리, 철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하지만 대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산간지대에는 물푸레 나무나 2년생의 싸릿대로도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는 철사, 철봉,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어 사용한다. 『해동농서』에서는 형파(荊笆)로 표기하고, ‘벼 고갱이를 따로 모으는 연장이다. 싸리나무를 구부려 만든 것으로 타작마다에 긴요하며 근 솔가리 나무를 할 때에도 쓴다’라고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아 싸리나무로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대나무갈퀴는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며 수명이 긴 것이 장점이다. 경기도 덕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길게 자란 2년생의 싸리를 통째로 구부려 만들어서 자루와 살이 한 몸을 이룬다.(사진 2) 또한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갈퀴도 확인된다.(사진 3)



그림 2. 해동농서의 갈퀴



사진 2. 다양한 형태의 갈퀴(©농업박물관)



사진 3. 나무로 만든 갈퀴

3. 갈퀴를 이용한 놀이

가을철 농가의 일과 중 하나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땀감을 모으기에 열중하는데, 이에 갈퀴만한 도구가 없다. 이와 관련된 놀이로 갈퀴치기가 있다.

나무꾼들이 갈퀴를 던져서 갈퀴의 상태를 보고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놀이로 주로 가을철 청년들이 산에서 낙엽이나 솔가지를 긁어모은 나뭇단을 걸고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놀이이다. 갈퀴를 던지거나 세워 돌린 후 갈퀴가 엎어지면 승리하거나 지는 놀이이다. 강화도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갈퀴를 옆으로 또는 뒤로 던지기도 하고, 무덤 뒤로 던져 승부를 내기도 한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갈퀴의 모양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놀이 방법은 갈퀴를 던질 지점을 정한 후, 선을 그어 놓고 갈퀴를 던져서 선 밖으로 나간 갈퀴가 엎어져야지만 이긴다. 물론 선 안으로 갈퀴가 떨어지게 되면 실격

이다. 한 사람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놀이는 계속되고 이긴 사람은 모아진 나뭇단을 가지게 되는 놀이이다.

나무땃감을 사용하던 시절의 놀이였으나, 연탄과 석유로 바뀌게 되면서 갈퀴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마른풀을 모으는 갈퀴는 복과 재물을 긁어모은다고 하여,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정초가 되면 갈퀴를 사다가 문에 걸어두고 풍년이 들고 재물이 들어오길 빌었다. 재물이 모이길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갈퀴가 혼을 부르는 도구로 쓰이는데, 아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아이가 입었던 옷을 갈퀴에 걸어 아이가 놀던 곳의 땅을 긁으면서 “혼이여 돌아오라.”하고 세 번 외치고, 갈퀴에 걸었던 옷을 아이가 다시 입으면 혼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중국은 갈퀴가 혼도 긁어모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토박이, 2009, 「겨레전통도감 농기구」, 보리출판사